

OCI,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“날개”

OCI는 최근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OCI(대표 백우석)는 3월17일에만 총 9500억원에 달하는 공급계약 2건을 성사시켰다.

타이완의 모टे크와 3183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0년 매출액의 12.2%에 해당한다.

또 중국의 트리나솔라에너지와 6411억원 상당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, 2010년 매출액의 24.6%에 해당한다.

<화학저널 2011/03/18>